



KIA 새 외국인 투수, '동반 10승' 관심

2009년 우승을 이끈 동반 10승 가능할까?

KIA 타이거즈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이 시범경기 등판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제이콥 터너와 조 윌랜드는 나란히 등판해 호투를 펼쳤다. 위력적인 볼을 뿌렸고 제구력까지 갖추었다. 2009년 통산 10번째 우승 당시 동반 10승을 올린 아킬리노 로페즈와 리 구토슨 이후 10년 만에 동반 두 자리 승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터너는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 선발등판해 501닝을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펼쳤다. 집중타를 맞지 않았고 주무기인 투심을 활용해 내야방어를 유도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KBO에 홈런이 많이 나와 땅볼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5회까지 외야 플라이는 단 1개에 불과했다.

2009년 우승 당시로페즈·구토슨 이후 가능성 ↑

터너, 시범경기 첫 날 주무기 투심 활용 무실점 윌랜드, NPB 10승 투수 위력 뽐내며 안정 제구

투수는 72개, 직구(32개) 최고 구속은 151km를 찍었다. 투심(14개), 커브(11개), 슬라이더(9개), 포크(6개)까지 다양한 구종을 던졌다. 볼넷 2개를 내주었지만 살짝 비켜가는 볼이었다.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실전 4경기에서 10이닝동안 10안타를 맞고 8실점을 했다. 평균자책점도 7.20이었다. 그러나 시범경기 첫 날에는 안정감을 과시했다.

이튿날 등판한 윌랜드는 NPB 10승 투수다운 위력을 뽐냈다. 5% 이닝동안 1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1회초 안타

와 볼넷을 내주고 흔들렸지만 로맥을 병살타로 유도하며 위기를 넘겼다. 이후 볼넷 1개만 내주고 SK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안정된 제구력이 돋보였다.

투수는 83개, 최고 148km짜리 직구를 비롯해 투심(18개)과 컷패스트볼(11개), 체인지업(11개), 커브(7개) 등 5개 구종을 현란하게 구사하며 SK 강타선을 잠재웠다. 구속은 정규리그에 들어가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터너처럼 4회까지는 땅볼만 유도하는 능숙한 투수로 이닝이 더 가능성도 함께 보여주었다.

김기태 감독도 "모두 제구력이 좋다. 자신이 던지고 싶은 구종을 모두 던졌다"면서 두 투수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에이스 양현종과 함께 모두 10승 이상을 따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이거즈 역대 외국인 투수 가운데 동반 10승을 따낸 것은 2009년이 처음이다. 로페즈는 14승, 평균자책점 3.12를 기록했고 구토슨은 13승, 평균자책점 3.24를 기록했다.

27승을 합작하며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뤘다. 구단의 역대 최다 외국인 투수 합작승리였다. 터너와 윌랜드도 10승 이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2009년의 역사를 재현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팀 타선이 KBO리그의 수준급에 있다는 점에서 화력지원은 충분하다. 첫 등판에서 희망을 안겨준 것만은 분명하다.



"이강인, 스페인 국왕컵 뛴 수 있을까?"

스페인 언론 관심...U-20 월드컵 출전 시 결승 출전 불가

축구 A대표팀 발탁으로 이강인(발렌시아)의 대표팀 생활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스페인 언론들이 벌써부터 그의 5월 차출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매체 엘데스포르테는 13일(한국시간) "이강인이 코파 델 레이(스페인 국왕컵) 결승을 뛴 수 있다"고 전했다.

발렌시아는 레알 베티스를 꺾고 국왕컵 결승에 올라있다. 11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발렌시아의 상대는 FC바르셀로나다. 두 팀은 5월26일 단판 승부로 트로피의 주인을 가린다.

국왕컵 결승전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과 일정이 겹친다. U-20 월드컵은 5월23일부터 6월14일까지 폴란드에서 개최된다. F조에 묶인 한국은 5월26일 포르투갈, 5월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6월 1일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상대한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선택을 해

야한다. (U-20 월드컵에 나서면) 국왕컵과 (진출할 경우) 유로파리그 결승에 빠질 수도 있다. 5월19일 레알 비야리비드와의 라 리가 최종전 출전 역시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또 "파울루 벤투 감독이 3월 6일에 이강인을 데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벤투 감독에 따르면 한국의 진짜 의도는 이강인을 U-20 월드컵에 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U-20 월드컵 출전은 대한축구협회와 발렌시아가 협의해야 한다"는 벤투 감독의 발언을 소개하며 발렌시아가 반드시 이강인을 내줄 이유는 없다고 짚었다. U-20 월드컵은 FIFA 의무 차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이 U-20 월드컵에서 호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페인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검증된 이강인이 가세한다면 공격 작업은 한결 힘을 받을 수 있다.

박성현 "세계랭킹 1위, 팬 사랑에 보답...1억 기부

세미프로즈미케팅(대표 이성환)은 박성현(26·솔레이)이 세계랭킹 1위 복귀를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1억원을 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 고액기부자클럽인 '이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박성현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많은 기부 금액을 전달하는 등 매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 LPGA 투어 역대 최초 신인으로서 세계랭킹 1위를 기록한 당시에도 1억원을 기부하며 이웃들과 나눔을 몸소 실천해왔으며 지난 3월 8일에는 후원사의



초청으로 출전한 필리핀 여자프로골프투어(LPGA) 대회에 참가해 하계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우승 상금 전액을 기부했다. 박성현은 "많은 팬 분들께 넘치도록 받은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는 것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시청 박다솔·강유정 유도 국가대표 확정

전국 유도 국가대표 선발전 및 전국남녀 유도대회 1위 차지

순천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제4회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순천시청 직장운동부 소속 박다솔 선수(-52kg)와 강유정 선수(-48kg)가 1위를 차지해 2019년 유도 국가대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48kg급 강유정선수는 결승전에서 광주철도공사 이혜경 선수를 만나 한판승으로 승리를 확정지었고, 52kg급 박다솔 선수는 고창군청 하

주회 선수와의 연장전 끝에 절반승을 거둬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 유도회 심상진회장은 시상식에 앞서 두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고 김양호 유도감독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도록 선수 지도역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 우승을 통해 국가대표로 확정된 박다솔 선수와 강유정 선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오는 4월 5일 터키에서 열리는 '2019 안탈리아 그랑프리대회'에 참가한다.

두 선수는 안탈리아 그랑프리에서 18위권에 진입하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얻게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매력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새미골, 회연사, 선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